

광주 미래 이끌 강소기업 키운다

市, 첨단기술 보유 '예비-명품기업' 신규 7곳·연장 6곳 선정 연구개발 과제 기획·신기술 사업화·자금 등 2년간 정책 지원

광주시에 물류로봇과 드론, 수소연료, 적외선 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지역 경제를 이끌 '예비-명품강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역 경제를 견인할 '2023년 제7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 13곳을 선정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제7기 예비-명품강소기업 중 신규 기업은 ㈜세연이앤에스(대표 김강·주생산품 가드레일 등 도시간전시설물), ㈜씨엔에스컴퍼니(박세은·보안경 등 광학기기), ㈜에이비추얼(김태준·살균기 등 공기조화장치), 예코피씨(채인원·수질정화장치 및 로봇), ㈜오딧세이글로벌(정중현·식품성장용 LED), ㈜유니컴퍼니(양승호·IR카메라, 드론, 물류로봇), ㈜호그린에어(홍성호·드론, 수소연료

스택) 등 7개사다.

(주)카온코리아(김도현·반도체 설비 및 시스템), 리바랩(김영철·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 보&봉(김보형·도자제품), 엠투테크(최창호·광통신부품, 광센서), 주식회사 잔솔(이정훈·화장품, 동물 의약품), 현대에프엔비(박승만·농산물 가공식품) 등 6개사는 연장기업이다.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연계해 운영 중인 지역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중 첫 단계로, 명품강소기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이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지난 7월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19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광주시는 서류심사, 발표평가·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지정 기간 2년 동안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신속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장개선, 사회가치(ESG) 경영 준비 등 기업 성장 목표와 성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 광주시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지원사업 연계, 기업 애로사항 공동 해결, 경영, 기술, 자금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기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 예비 명품강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기업성장사다리 다음 단계인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명품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소·염소 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다음달 4~18일...50두 이상 농가에 구입비 50% 지원

광주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광주지역 사육 중인 소 174농가 4600마리와 염소 20농가 700마리다. 출하 예정일이 2주 이내이거나 백신접종한 지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임신말기에 접어들어 가축은 이번 일제접종에서 제외하고 사유가 해제되면 보강 접종한다.

전국 일제접종은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내놓은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에 따라 그동안 6주간 실시했던 일제접

종 기간을 올 하반기부터 2주로 단축했다.

광주시는 소규모 소 사육농가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가 무료로 접종하고,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택송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로 가축 질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역 사육농가들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백신접종과 농장별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을밤 순천시 '영화의 정원을 거닐다'

다음달 11~16일 '남도영화제 시즌1' 25개국 97편 상영

전남도의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이 오는 10월 11일부터 6일간 순천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남도영화제는 '남도 예비리밍'을 주제로 국내 외 25개국 97편의 작품이 상영되고 시네마트립, 영화의 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남도의 생태, 음식, 역사, 역사, 예술 등 남도의 모든 것을 영화와 엮은 로컬영화제- 남도만의 다채로운 매력과 재미를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화 마니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영화와 공연, 문학, 음악, 미디어가 결합된 새로운 문화콘텐트로서 남도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재조명한다. 특히 도민과 공연, 정원, 작가 등이 함께하는 영화제로서 기존 영화제와 차별화된 콘셉트로 진행된다. 이와함께 가을밤 '영화의 정원을 거닐다'라는 부제 아래 경연, 산보, 풍광, 동행, 여흥의 5개 섹션을 구성해 관람객이 남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영화제는 10월 11일 오후 순천만 국가정원 오전

그린광장에서 막이 오른다. 배우, 감독들의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6일간 여정에 돌입한다.

이날 주요 프로그램은 12일 신안에서 촬영된 '자산어보'의 이준익 감독과의 대화, 13일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모리코네의 삶을 다룬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 14일 대한민국 최고 음악 거장 강산애와 함께하는 라이브 밴드공연 등이다. 15일엔 남도를 대표하는 김승욱 작가와 정중현의 가수가 함께 참여하는 '김승욱, 안개, 무진 특별기획전'이 펼쳐진다.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 기간 순천만국가정원 오전그린광장, 조례호수공원, 가든스테이, 순천CGV,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 등 6개소, 11개 스크린에서 25개 나라 97편의 작품이 무료로 상영된다. 자세한 영화제 세부일정과 상영작은 남도영화제 누리집(www.ndff.kr),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지난 18일까지 3일간 전북 수출 기업인 ㈜청산바다, 일본 내 최대 수산물 유통기업인 트루월드재팬과 일본 현지에서 전북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전북 소비 위축, 해외 수출로 '위기 돌파'

전남도, 日 이온그룹 마켓서 판촉...年 500t 수입 의향 성과

전남도가 전북 수출량 증가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전북 양식업가의 위기 탈출을 위해 해외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먼저 지난 18일까지 3일간 아시아 최초 ASC 인증 전북 수출 기업인 ㈜청산바다, 일본 내 최대 수산물 유통기업인 트루월드재팬과 함께 일본 현지에서 전북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ASC 인증은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수

산양식관리협회가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해 키운 양식 수산물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지난 2018년 ㈜청산바다가 인증을 받았다.

이번 판촉행사는 일본 경로의 날 연휴를 맞아 아시아 최대 유통기업 이온그룹이 운영하는 이온몰 식품마켓 80개소(도쿄 60개소·오사카 20개소)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판촉행사에선 전남산 전복을 홍보하기 위해 할인판매에 나서고 기념품을 배포하

는 한편,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행사장에는 이온그룹 내 수산물 유통을 총괄하는 마츠모토 부장이 직접 참석해 ASC 인증을 받은 전남산 전복 유통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위지연 ㈜청산바다 대표는 "전남 전복 양식 어민들이 선제적으로 ASC 인증을 도입해 적용한 것이 이온그룹 마켓에 입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ASC 인증 양식 어가를 더욱 확대해 전남산 전복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현지 판촉행사에선 연간 300t 정도의 전남산 전복을 수입 유통해온 트루월드재팬이 수입 물량을 500t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사가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어린이 놀이터 친환경 목재 새단장

지난해 목표·무안 이어 5곳 추가...탄소중립 실천 확산 기대

전남도가 도내 노후 철재·플라스틱 어린이 놀이시설을 친환경 목재 놀이터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목재의 친환경성과 안전성, 온실가스 흡수 기능의 홍보를 통해 목재 이용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목포시(용당어린이공원)와 무안군(어린이공원31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는 10억 원을 들여 ▲여수시 양지공원 ▲화순군 광덕재어린이공원 ▲해남군 해리1어린이공원 ▲함평군 대화어린이공원 ▲영광군 신하어린이공원이 조성 중이다.

대상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낙후도, 이용성 및 활용도,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서류 심사와 목재 관련 전문가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남도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창의성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반영해 어린이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놀이공간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고 자연을 느끼고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체험교육과 연계해 통한 숲 교육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생활권 주변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이 필요하다"며 "학교, 주택, 공공시설 주변에 목재놀이터를 확대 조성해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확대발굴,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